# 전문대학 체육전공자의 개인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 분석

## Analysis on the Differences of the Occupation Values Toward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Majoring in Sports at Junior Colleges

송강영*, 이태용**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Kang-Young Song(sky-soccer@hanmail.net)*, Tae-Yong Lee(leety79@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체육전공자들의 개인특성에 따라 인지하는 직업가치관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관심에서의 차이는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23세이상이 21-22세, 19-20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수입에서의 차이는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23세이상이, 19-20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서의 차이는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 자부심에서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23세이상이 21-22세, 19-20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행동 선호도에서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신분상승에서는 성별, 학년, 연령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중심어 : | 전문대학 | 체육전공자 | 직업 | 가치관 |

**Abstract**

This research target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sports at junior colleges and it purpose lies in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s towards sports related occupations follow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First,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of the interest in an organization, sophomore shows more difference than freshman and students who are more than 23 years old shows more difference than students who are 21 or 22 years old. Second,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in economic incomes, sophomore shows more difference than freshman and students who are more than 23 years old shows more difference than students who are 19 or 20 years old. Third,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in societal status, sophomore shows more difference than freshman. Fourth,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in the sense of pride towards one's occupation, male students shows more difference than female students, freshman shows more difference than sophomore and students who are more than 23 years old shows more difference than students who are 21 or 22 years old and 19 or 20 years old. Fifth,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male students shows more difference than female students. Sixth, when it comes to the rise of social position, there is no difference in sex, school year or age.

■ keyword : | Junior Colleges | Majoring in Sports | Occupations | Values |

접수번호 : #090722-008
접수일자 : 2009년 07월 22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8월 07일
교신저자 : 이태용, e-mail : leety79@hanmail.net

## I. 서 론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이상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하고 또한 그 직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은 물론 자아실현을 꾀하려고 한다[9]. 따라서 장차 진로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전념하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의와 행복을 제공해 주며 또한 이러한 것이 개개인 모두의 삶의 질까지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5].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고 직업이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대학의 역할은 학문연구와 진리탐구의 전통적인 기능 수행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을 준비하는 실용적 교육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1]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2, 3년제 대학에서는 보다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학은 획일 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적 훈련을 위한 폭넓은 교육으로 그 방향이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빠르게 변화해야한다.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한국의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 또한 많은 발전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제로 인한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체육전공 학생들의 전문인 양성 및 진로의 문제는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사회체육 현장에서 체육전공자들은 스포츠지도자와 스포츠산업 인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체육전공자들이 직업에 관하여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은 스포츠센터(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에어로빅 등), 구·군 보건소, 생활체육협의회, 체육관, 유소년 스포츠클럽, 방과 후 학교 체육관련 지도자, 각종 종목의 협회 또는 연맹에서 고객 또는 회원들에게 수준 높은 무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참여자의 만족을 높여 결국은 조직경영에 큰 영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국내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낮은 교육의 질, 진로 교육의 미흡, 진로 영역의 부재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7].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직업가치관에 관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Crace & Brown[13], Macnab & Fitzsimmons[14] Neivill & Super[15], Prediger & Staples[16], 김경선[3], 김태희, 장경로[4], 안강현, 이용환[6], 장경혜[8], 정현주, 조광민, 변원태[11]).

최근 국내의 전문대학 체육관련 학과의 교육환경은 4년제 대학의 정원 수 증원, 유사학과 신설, 입학대상 정원수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으며, 전문대학 입학생의 질적인 저하(기초 실기능력 부족, 학습의욕 저하 등)는 대학생활 부적응 현상, 전공에 대한 학습태도 약화, 진로탐색 및 의식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전문대학 체육전공자는 스포츠산업 및 현장에서 스포츠지도자로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은 양적인 성장에 걸맞고 내실 있는 교육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대학 체육전공 분야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이 요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체육전공자의 제한된 진로영역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계열 전공과 관련된 직업가치관은 차후 일선 스포츠 현장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이미 전공영역에 따라 미래 직업선택이 어느 정도 결정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세분화된 직업선택은 같은 전공이라도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체육관련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직업가치관을 알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7].

직업가치관은 개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직업교육 정책 수립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관념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조사함으로서 전문대학 체육 전공자의 올바른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 체육전공자의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직업가치관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 체육관련 전공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개인특성에 따라 인지하는 직업가치관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개인특성에 따른 조직 관심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적 수입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개인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개인특성에 따른 일 자부심은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개인특성에 따른 행동 선호도는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신분 상승 성별, 학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전문대학 체육전공자의 개인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차이분석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 체육전공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각 대학에 조사 승인과 협조를 얻은 후,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완성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여 본 연구자에게 다시 우편 발송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대학 체육 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 동안 각 대학에 80명씩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43명 표집 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34개를 제외한 최종 409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고 회수율은 85.7%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특성 | 집단 | 사례수(명) | 비율(%) |
|---|---|---|---|
| 성별 | 남학생 | 290 | 70.9 |
| | 여학생 | 119 | 29.1 |
| 학년 | 1학년 | 222 | 54.3 |
| | 2학년 | 187 | 45.7 |
| 연령 | 19-20세 | 190 | 46.4 |
| | 21-22세 | 96 | 23.5 |
| | 23세 이상 | 123 | 30.1 |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 290명(70.9%), 여학생 119명(29.1%) 이었다. 학년은 1학년 222명(54.3%), 2학년 187명(45.7)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9-20세 190명(46.4%), 21-22세 96명(23.5%), 23세 이상 123명(30.1%)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체육전공자가 지각하는 직업가치관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념 및 태도, 일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직업 환경, 그리고 사회학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개인의 관점 또는 견해[2]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Wollak[17]의 직업가치관 조사지(Survey of Work Value: SWV)를 한동훈[12]이 번안하고 수정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사용된 설문지의 직업가치관의 변인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t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내용**

| 특성 | 설문내용 | 문항수 |
|---|---|---|
| 개인적 특성 | 성별, 학년, 연령 | 3 |
| 직업가치관 측정 변인 | 사회적 지지(4, 10, 16) | 3 |
| | 조직 관심(5, 11, 17) | 3 |
| | 경제적 수입(6, 12, 18) | 3 |
| | 일 자부심(1, 7, 13) | 3 |
| | 행동 선호성(2, 8, 14) | 3 |
| | 신분 상승(3, 9, 15) | 3 |
| 계 | | 21 |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구분 | | 문항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요인6 | 공분산비 | 신뢰도 |
|---|---|---|---|---|---|---|---|---|---|---|
| 직업 가치관 | 조직 관심 | 17 | .855 | .021 | .149 | .153 | .066 | .221 | .744 | .866 |
| | | 5 | .842 | .041 | .080 | .139 | .134 | .209 | .746 | |
| | | 11 | .831 | .065 | .043 | .164 | .170 | .099 | .741 | |
| | 경제적 수입 | 12 | .032 | .899 | -.004 | .003 | .140 | .056 | .770 | .848 |
| | | 18 | .090 | .844 | -.013 | -.002 | .239 | .064 | .792 | |
| | | 6 | -.001 | .797 | .038 | .090 | .157 | .230 | .720 | |
| | 사회적 지지 | 4 | .119 | -.004 | .862 | .146 | .073 | .089 | .663 | .798 |
| | | 10 | .048 | -.002 | .844 | .194 | .121 | .054 | .664 | |
| | | 16 | .081 | .027 | .817 | .103 | .057 | .174 | .719 | |
| | 행동 선호도 | 8 | .204 | -.005 | .092 | .825 | .066 | .077 | .746 | .838 |
| | | 2 | .121 | .044 | .172 | .825 | .063 | .125 | .709 | |
| | | 14 | .108 | .050 | .188 | .821 | .075 | .199 | .702 | |
| | 일 자부심 | 17 | .116 | .125 | .108 | .115 | .818 | .149 | .799 | .825 |
| | | 7 | .111 | .216 | .136 | .023 | .793 | .054 | .761 | |
| | | 1 | .134 | .215 | .019 | .075 | .770 | .194 | .830 | |
| | 신분 상승 | 15 | .277 | .043 | .142 | .164 | .069 | .768 | .722 | .746 |
| | | 3 | .085 | .129 | .042 | .049 | .242 | .759 | .833 | |
| | | 9 | .207 | .203 | .187 | .150 | .099 | .716 | .781 | |
| 고유치 | | | 5.513 | 2.586 | 1.738 | 1.388 | 1.191 | 1.027 | | |
| 분산(%) | | | 30.626 | 14.366 | 9.654 | 7.711 | 6.616 | 5.707 | | |
| 누적분산(%) | | | 30.626 | 44.626 | 54.646 | 62.356 | 68.972 | 74.680 | | |

##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은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와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이용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박사 학위 소지자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구성 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고유치가 1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이 .50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이중 부하되지 않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2개요인의 직업가치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설명력은 74.680%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이 포함된 항목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인 공분산비는 최하 .663-.833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값을 확인하였으며 각 요인에 관한 신뢰도의 검증결과는 [표 3]과 같이 Cronbach' α= .746-.866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 SPSS Ver. 12.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개인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직업가치관의 요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또한 직업가치관의 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였다.

# Ⅲ. 결 과

## 1. 개인특성에 따른 조직관심 차이분석

표 4. 개인특성에 따른 조직관심 차이분석

| 구분 | 집단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t/F | 사후 검증 |
|---|---|---|---|---|---|
| 성별 | 남학생(A) | n=290 | 3.44±.74 | 1.207 | |
| | 여학생(B) | n=119 | 3.33±.85 | | |
| 학년 | 1학년(A) | n=222 | 3.33±.77 | -2.264* | |
| | 2학년(B) | n=187 | 3.50±.77 | | |
| 연령 | 19-20세(A) | n=190 | 3.48±.77 | 14.788*** | A,B<C |
| | 21-22세(B) | n= 96 | 3.65±.86 | | |
| | 23세이상(C) | n=123 | 3.98±.75 | | |

*p<.05 ***p<.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특성에 따른 조직관심 차이분석 결과, 학년,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에서는 2학년(3.50±.77)이 1학년(3.33±.77)보다 높게 나타났고(p<.05), 연령에서는 23세 이상(3.98±.75)이 21-22세(3.65±.86), 19-20세(3.48±.77)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 2.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적 수입 차이분석

**표 5.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적 수입 차이분석**

| 구분 | 집단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t/F | 사후 검증 |
|---|---|---|---|---|---|
| 성별 | 남학생(A)<br>여학생(B) | n=290<br>n=119 | 3.62±.79<br>3.48±.82 | 1.659 | |
| 학년 | 1학년(A)<br>2학년(B) | n=222<br>n=187 | 3.50±.77<br>3.68±.83 | -2.200* | |
| 연령 | 19-20세(A)<br>21-22세(B)<br>23세이상(C) | n=190<br>n= 96<br>n=123 | 3.39±.90<br>3.49±.99<br>3.68±.91 | 3.665* | A<C |

*p<.05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적 수입 차이분석 결과, 학년,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에서 2학년(3.68±.83)이 1학년(3.50±.77)보다 높게 나타났고(p<.05), 연령에서는 23세 이상(3.68±.91)이 19-20세(3.48±.77 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 3. 개인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분석

**표 6. 개인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분석**

| 구분 | 집단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t/F | 사후 검증 |
|---|---|---|---|---|---|
| 성별 | 남학생(A)<br>여학생(B) | n=290<br>n=119 | 3.55±.91<br>3.37±.99 | 1.766 | |
| 학년 | 1학년(A)<br>2학년(B) | n=222<br>n=187 | 3.35±.87<br>3.67±.98 | -3.427*** | |
| 연령 | 19-20세(A)<br>21-22세(B)<br>23세이상(C) | n=190<br>n= 96<br>n=123 | 3.31±.77<br>3.47±.89<br>3.51±.68 | 2.972 | |

***p<.00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적 수입 차이분석 결과,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에서 2학년(3.67±.98)이 1학년(3.35±.87)보다 높게 나타났다.

## 4. 개인특성에 따른 일 자부심 차이분석

**표 7. 개인특성에 따른 일 자부심 차이분석**

| 구분 | 집단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t/F | 사후 검증 |
|---|---|---|---|---|---|
| 성별 | 남학생(A)<br>여학생(B) | n=290<br>n=119 | 3.98±.64<br>3.80±1.05 | 2.163* | |
| 학년 | 1학년(A)<br>2학년(B) | n=222<br>n=187 | 4.00±.82<br>3.84±.73 | 2.149* | |
| 연령 | 19-20세(A)<br>21-22세(B)<br>23세이상(C) | n=190<br>n= 96<br>n=123 | 3.48±.77<br>3.65±.86<br>3.98±.75 | 14.788*** | A,B<C |

*p<.05 ***p<.001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특성에 따른 일 자부심 차이분석 결과, 성별, 학년,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4.00±.82)이 2학년(3.84±.73)보다 높게 나타났고(p<.05), 23세 이상(3.98±.75)이 21-22세(3.65±.86), 19-20세(3.48±.77)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 5. 개인특성에 따른 행동 선호도 차이분석

**표 8. 개인특성에 따른 행동 선호도 차이분석**

| 구분 | 집단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t/F | 사후 검증 |
|---|---|---|---|---|---|
| 성별 | 남학생(A)<br>여학생(B) | n=290<br>n=119 | 3.49±.75<br>3.21±.93 | 3.120** | |
| 학년 | 1학년(A)<br>2학년(B) | n=222<br>n=187 | 3.41±.81<br>3.41±.83 | .029 | |
| 연령 | 19-20세(A)<br>21-22세(B)<br>23세이상(C) | n=190<br>n= 96<br>n=123 | 3.37±.81<br>3.34±.87<br>3.52±.79 | 1.731 | |

**p<.01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특성에 따른 행동 선호도 차이분석 결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학생(3.49±.75)이 여학생(3.21±.93)보다 높게 나타났다(p<.01).

### 6. 개인특성에 따른 신분상승 차이분석

표 9. 개인특성에 따른 신분상승 차이분석

| 구분 | 집단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t/F | 사후 검증 |
|---|---|---|---|---|---|
| 성별 | 남학생(A)<br>여학생(B) | n=290<br>n=119 | 3.68±.72<br>3.54±.78 | 1.659 | |
| 학년 | 1학년(A)<br>2학년(B) | n=222<br>n=187 | 3.63±.79<br>3.65±.67 | -.392 | |
| 연령 | 19-20세(A)<br>21-22세(B)<br>23세이상(C) | n=190<br>n= 96<br>n=123 | 3.66±.79<br>3.61±.70<br>3.64±.69 | .146 | |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특성에 따른 신분상승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Ⅳ. 논의

본 연구는 앞으로 스포츠산업을 이끌어갈 체육전공자들의 직업가치관을 성별, 학년별, 연령별에 따른 체육관련 직업가치관의 차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관심에서의 차이는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23세이상이 21-22세, 19-20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이고 적극적인 행동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재학기간 중 인턴경험과 인적접촉을 통하여 직, 간접을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제적 수입에서의 차이는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23세이상이, 19-20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좋은 직장과 높은 보수로 통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직군으로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웰빙 열풍으로 개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대안이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되면서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직장에서 운동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스포츠관련 산업 역시 동시에 발달하였으며 상업스포츠시설(휘트니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요가, 필라테스, 어린이 스포츠클럽, 태권도도장)들이 개설되어 활성화를 이루는 상황에서 졸업을 앞둔 2학년과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직업적 탐색과 현장실무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인식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서의 차이는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학년의 경우 당장 취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직업 선택은 곧 자신의 생활의 중심인 동시에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존경받고 사회계층으로의 상승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일 자부심에서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23세 이상이 21-22세, 19-20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강현, 이용환[6], 육영숙[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대부분의 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자신이 운동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 체육관련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서 스포츠관련 직업에 관한 탐색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직업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긍정정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행동 선호도에서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사회적인분위기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체육관련 전공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스포츠관련 직업군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여성 체육지도자들도 조직 활동에 참여기회를 많이 보장해 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대우를 요구 시 된다.

여섯째, 신분상승에서는 성별, 학년, 연령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스포츠산업의 양적, 질적 팽창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스포츠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직업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위하여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자기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을 인지하고 있고, 직업 활동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스

포츠산업의 활성화와 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은 직업에 대한 비전을 성별, 학년, 연령에 관계없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Ⅳ. 결론 및 제언

올바른 직업가치관은 직업교육과 자생력 있는 지도자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알아보기 위해 전문대학 체육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직업가치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직관심에서의 차이는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23세이상이 21-22세, 19-20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수입에서의 차이는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23세이상이, 19-20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서의 차이는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 자부심에서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23세이상이 21-22세, 19-20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행동 선호도에서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신분상승에서는 성별, 학년, 연령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현재 대학에서의 진로교육과 스포츠산업 관계자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체육전공 학과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의 집단 간 차이를 통하여 개개인에서 올바른 직업의식과 스포츠산업 현장에서의 구성원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의식을 제공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 외에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성원, "기업의 대학교육만족도 조사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0.

[2] 강재택, 표은영,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직업훈련원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비교 연구", 경상대학교 새마을연구, 제5권, pp109-127, 1987.

[3] 김경선, "노인케어에 대한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유형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32권, 제22호, pp.357-376, 2006.

[4] 김태희, 장경로,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및 학과만족, 그리고 대학 및 직업위상에 대한 인식이 전공 관련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1호, 제1호, pp.69-79, 2007.

[5] 박채화, "*축구선수들의 진로의식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6] 안강현, 이용환,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유형에 관한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pp.1-17, 1998.

[7] 육영숙, "체육관련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스포츠 직업가치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09-119, 1999.

[8] 장경혜, "대학이미지 광고, 대학이미지와 대학 및 전공 선택행동의 관계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2호, pp.220-227, 2008.

[9] 장호중,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상담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제4호, pp.149-157, 2006.

[10] 정청희, "체육학과 지도자 양성방향과 진로모색", 한국체육학회 국제학술세미나, 1992.

[11] 정현주, 조광민, 변원태, "종합사회체육시설 지도자들의 스포츠 관련 직업가치관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4권, 제2호, pp.231-245, 1999.

[12] 한동훈,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가치관과 조직몰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6.

[13] R. K. Crece and D. Brawn, The life values inventory,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s, 1995.

[14] D. Macnab., W. Fitzsimmons. "A Multitrait Multimethod study of work related needs, value, and preferences," Journal of Vacational Behavior, Vol.30, pp.1-5, 1987.

[15] D. D. Nevil and J. G. Staples, "*The values scale: Theory application, and research,*"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6.

[16] D. J. Prediger and J. G. Staples, "Liking occupational attribute preference to occupation. American Call Testing Report Series," Vol.96, No.3, pp.1-96.

[17] S. Wollak. J. Goodale. J. Witjing. and P. Smith. "Development of the wurvey of work valu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55, No.1, pp.331-338, 1977.

## 저 자 소 개

**송 강 영(Kang-Young Song)** 종신회원

- 1999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교육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가 및 레저스포츠

**이 태 용(Tae-Yong Lee)** 정회원

- 2007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 2007년 9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 스포츠과학계열 강사

<관심분야> : 스포츠산업, 실버스포츠마케팅